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황성주 교수, '한만정 학술상' 수상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황성주 교수가 2021년 4월에 개최된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제5회 한만정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만정 학술상은 매년 국내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 1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황성주 교수는 새로운 개념의 2차원 무기 나노시트 기반 혼성체의 합성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응용 분야 개척의 성과를 인정받아 본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황성주 교수는 "코로나 시국과 어려운 연구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 학생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연구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화학 분야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심기일전해서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성주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보르도 1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쳤으며, 2002년부터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2019년부터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교수는 SRC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고체화학분야 최고학술지인 Journal of Solid State Chemistry의 부편집장 및 다수의 재료과학분야 저명 해외학술지의 editorial board 직을 맡고 있다.